

# 11시에 만나요... 행복한 '문화 데이트'

문화전당 브런치 콘서트 '쉼' 올해 일정

30일 배우 손현주의 국악 이야기  
김동규·최태지·김성녀·강제규...  
창극·오페라·국악 등 다양한 장르  
12월까지 매달 '문화가 있는 날' 공연  
9회 관람권 '패밀리 티켓'도 한정 판매



손현주 김동규 최태지 김성녀

### ACC 브런치 콘서트 '쉼' 일정표

일시	프로그램
3월 30일	배우 손현주의 이야기가 있는 국악콘서트
4월 27일	바리톤 김동규와 소프라노
5월 11일	최태지의 해설과 함께하는 발레 무대
6월 29일	김성녀의 창극 이야기
7월 20일	음악칼럼니스트 유정우의 낭랑특집 오페라 이야기
8월 31일	첼리스트 김규식과 무누스앙상블의 탕고 음악
9월 28일	영화감독 강제규의 영화와 음악이 있는 시간
10월 26일	피아니스트 이지연의 지브리 애니메이션과 즐기는 재즈
11월 30일	국악인 이화문이 들려주는 색다른 우리 음악 이야기
12월 28일	음악평론가 장일범의 겨울에 듣는 클래식

'ACC 브런치 콘서트 쉼(Shium)'(이하 쉼)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올해 첫 선을 보인 프로그램이다. 지난 3일 열린 첫 무대 '지휘자 금남재의 해설이 있는 클래식'은 관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문화가 있는 날(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오전 11시 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2에서 열리는 '쉼'은 문화예술계를 이끄는 다양한 인사들을 초청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음악을 감상하는 프로그램이다.

전당이 17일 발표한 올해 '쉼' 2016년 프로그램에서는 김동규, 최태지, 강제규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을 만날 수 있다. 이들과 함께 나누는 음악도 창극, 오페라, 탕고, 국악, 재즈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른다.

오는 30일 열리는 두 번째 무대는 '배우 손현주의 이야기가 있는 국악콘서트'다. 탄탄한 연기력을 자랑하는 손현주는 2005년 장애인 어린이 합창단 '에반젤리'를 창단하고 현재 단장을 맡고 있다. 그는 에반젤리 장애인 합창단과 '남자의 자격'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했다.

그의 이야기와 함께하는 이는 미국인 가야금 병창 주자 조세린(Jocelyn Clark)이다. 하버드대학에서 한국 음악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그녀는 황병기·지성자·강은경씨를 사사했다. 고수로 호흡을 맞추는 조종훈

(중요무형문화재 82-1호 동해안 별신굿 이수자)은 이날 공연에서 최근 복원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도자기 장고를 연주한다. MC는 코미디언 겸 배우 고명환이 맡았다.

4월 27일 열리는 세 번째 무대는 바리톤 김동규와 소프라노 김지현·김민정·송윤진이 함께하는 '김동규와 소프라노'다.

그밖에 최태지의 '해설과 함께하는 발레 이야기'(5월 11일), 김성녀의 '해설이 있는 창극 이야기'(6월 29일), 음악칼럼니스트 유정우의 '한여름 낭랑특집 오페라 이야기'(7월 20일), 첼리스트 김규식과 무누스앙상블의 '한여름 탕고 음악 스테이지'(8월 31일), 영화감독 강제규의 '영화와 음악이 있는 시간'(연주 클래식 앙상블·9월 28일), 피아니스트 이지연의 '지브리 애니메이션과 함께 즐기는 재즈'(10월 26일), 젊은 국악인 이화문의 '색다른 우리 음악 이야기'(11월 30일), 음악평론가 장일범의 '겨울에 듣는 클래식'(12월 28일) 등이 열린다.

티켓 가격 전석 2만원, 4~12월 총 9회 공연 관람권을 13만원에 판매하는 '쉼 패밀리 티켓'도 오는 30일부터 4월 15일까지 선착순 200매 한정 판매할 계획이다. 예매는 ACC홈페이지(www.acc.go.kr), 콜센터(1899-5566)에서 가능하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무등산과 주상절리의 멋

박정우 사진전... 19~30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입석대 비경과 철쭉'

박정우 사진작가가 19일부터 30일까지 광주 빛고을시민문화관 1층 전시실에서 '무등산과 주상절리의 멋'을 주제로 사진전을 개최한다.

노년변 장애 2급인 박씨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약 4년 전부터 무등산을 비롯해 전국을 돌아다니며 주상절리를 렌즈에 담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 박씨는 무등산을 300년 이상 오르며 찍은 주상절리, 제주도 용머리 해안 등 사진 작품 75점을 선보인다.

박씨 사진은 다양한 색채를 보여준다. 파란 하늘 밑 자춧빛 철쭉이 인상적인 '입석대 비경과 철쭉', 붉은 단풍으로 화

면을 가득 채운 '만추의 종성 계곡' 등을 이번 전시에서 볼 수 있다. '입석대 비경과 겨울 운무' 등은 작품을 위해 사계절 무등산을 오르내린 정성이 느껴진다.

박씨는 "지난 2012년 무작정 카메라를 들고 무등산을 오른 뒤로 주상절리 매력에 빠져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는 광주이고를 졸업하고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캘로그 스쿨에서 사진을 부전공했다. 지난 2014년 같은 장소에서 '주상절리 그리고 무등의 꿈'을 주제로 첫 번째 개인전을 개최했다. 문의 010-7175-0089. /김홍희기자 kimyh@

## 광주피아노아카데미 신인음악회

24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전남대 음악학과 졸업)씨다.

광주피아노아카데미(회장 박행숙) 2016 신인음악회가 오는 24일 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출연자는 이다솜(전남대 음악학과 졸업), 장보음(호남신학대 음악학과 졸업), 문수현(전남대 음악학과 대학원 재학), 유가연(순천대 피아노학과 졸업), 이진

원주 레퍼토리는 쇼팽의 '환상곡 [단조]', 리스트의 '헝가리안 랩소디', 슈만 '심포니 에튀드 작품 13' 등이다.

지난 1990년 창립된 광주피아노아카데미는 지역 대학 교육 현장에서 몸담고 있는 피아니스트들의 모임으로 매년 두 차례 정기연주회와 신인음악회, 유명 피아니스트 초청연주회를 열고 있다. 문의 010-7177-6243. /김미은기자 mekim@

## 광주문화재단 제3기 대학생기자단 28일까지 모집

광주문화재단이 제3기 대학생기자단을 모집한다.

대학생기자단은 매달 2회 이상 재단 행사를 비롯한 지역 문화현장, 문화예술계 인물 등을 취재한 뒤 글·사진·영상으로 기사를 작성해 광주문화재단 블로그에 게재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기자단은 재단이 주최·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우선 초청되고 기자증, 활동비가 지급된다. 우수 원고는 언론사 기고, 재단 월간 리플렛 '문화마실'에도 게재되

며 우수활동 기자에게는 연말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상이 수여될 계획이다.

대상은 평소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거나 적극적으로 활동이 가능한 대학생 또는 한국어가 능숙한 해외 유학생이다. 사진과 글 또는 영상 취재가 가능한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마감은 28일까지다. 서류와 면접심사를 거쳐 3월 중 최종 7명 내외를 선발할 계획이다.

문의 062-670-7423 /김홍희기자 kimyh@kwangju.co.kr

## 파리 'Korea Now!'展 출품작

23일까지 亞문화전당 무료 전시

지난해 9월부터 올 1월 3일까지 파리국립장식미술관에서 열린 'Korea Now!'전 출품작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한불수교 130주년을 기념해 열렸던 이번 전시는 양국이 3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진행한 프로젝트로 한복 한국 공예·패션·그래픽디자인의 전통과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전시로 호평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 등이 함께 기획한 'Made in Korea-문화로 산업을 창조하다'전이 18일부터 23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조원 복합 5관과 6관에서 열린다.

'한국문화의 정수' 코너에서는 'Korea Now!'전 참가작을 만날 수 있다. 한복 디자이너 이영희의 활옷 드레스를 비롯해 설운영·김영석 등이 디자인한 한복(48점)과 정해조의 '오색광울' 등 공예(80점), 안상수·강태환의 '자유음악' 등 그래픽(30점)을 포함 모두 185점이 전시된다. 두 번째 공간에서는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 선정작들을 만날 수 있다. 콘텐츠, 한복, 한식 분야 작품 50여점이 전시된다.

세 번째 공간에서는 KT&G, 기아자동차 등 기업과 전



파리 장식미술관 'Korea Now!'전 출품작을 만날 수 있는 'Made in Korea'전이 오는 23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조원에서 열린다.

통 장인의 만남을 통해 개발된 기업 연계 융복합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그밖에 생태계 보고인 우포늪과 주매마을 풍어제를 ICT 기술로 융합한 오토마타 오르골과 조선시대 회화 공간을 가상 현실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조선 일렉트로

닉스 Vol.1 The Moon', 전통문화를 소재로 산업용 로봇이 선보이는 미디어 아트 퍼포먼스도 만날 수 있다.

전시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전당 휴관일인 21일에도 관람할 수 있다. 무료 관람. 문의 062-601-402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워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세미나  
연회장

상견례  
가족모임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흙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아리랑맛집**  
5회연속 선정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흙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